지역실정 충분히 반영되어야

일률적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어항과 연계된 시설에도 투자를

김 수 완 / 제주도 해양수산과장

소규모항 개발은 과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므로
대부분 응급시설로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항간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어촌·어항의 종합적 기능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어촌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도는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과 조화되는 어항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비록 아주 작은 어촌일지라도 소규모항을 근거지로 하여
새로운 어촌관광상품이 개발되고, 도시사람들이 어느 때나 와서
어촌과 바다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어항과 어촌을 정성 들여 만들고 가꾸도록 해야할 것이다.

64개항에 '99년까지 121억원 투자

육지소규모항의 개념은 육지 연안의 어촌마을에 위치한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어업의 근거지로서 어항법상 지정어항이 아닌 항·포구이다.

대부분의 소규모항이 기본시설이 미흡하고 수심이 얕아 어선출입항이 불편하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 어선안전수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육지소규모항개발은 '99년말까지 3,47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2,459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부재정 형편 등에 따라 얼마만큼 예산확보가 이루어질런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육지소규모항은 64개항이며 '99년도 말까지 12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6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연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7억원 정도로 투자가 아주 미흡하여 어항 완성기간이 점점 지연될 전망이다.〈표 1〉

또한, 소규모항은 비법정어항으로서 어항법에 적용되지 않아 어항법상 시설이 가능한 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불가능하여 어촌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어항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촌관광, 해양레저 등 가장 매력 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업종사자들이 어촌의 쾌적한 환경하에서 작업을 하고, 효율적 어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항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산 및 생활중심지인 동시에 도시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휴식·휴양공간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능강화에도 생각을 해야한다.

지역거점 어항위주로 집중투자개발을

소규모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므로 관리주체가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국비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 개발이 부진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도비 병행지원과 함께 연차별사업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표 1〉 제주지역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m,억원)

시군별	항수	총계획		기시설('99까지)		2000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4	26,100	1,225	18,540	534	60	7	7,500	684
제주시	8	3,466	217	2,802	121	7	1	657	95
서귀포시	3	1,944	240	901	46	4	1	1,039	193
북제주군	29	11,167	383	8,301	249	29	3	2,837	131
남제주군	24	9,523	385	6,536	118	20	2	2,967	265

자료:제주도해양수산과

그러나 소규모항개발을 함에 있어 어촌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항·포구를 일률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선세력, 어업종사자 등 개발여건이 충분하고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항을 선정, 지역거점어항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규모항 중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항은 항종조정을 통하여 2종어항으로 승격시켜 대규모어항으로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항개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항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항은 단순히 어항 그 자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별특성에 따라 어업활동, 어촌관광, 해양레저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어항으로 개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시설에서 탈피 미래지향적으로

소규모항은 어촌의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인 만큼 여건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므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소규모항 개발은 과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제약

을 받아 왔으므로 대부분 응급시설로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어선세력, 어업종사자, 기상(파도, 바람)영향의 정도 등 지역여건과 어촌의 정주기반시설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어업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각 소규모항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한 다음, 각 소규모항이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투자 대상어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균형적 개발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어항간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어촌·어항의 종합적 기능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어촌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도는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과 조화되는 어항개발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춘 어항을 장래에도 계속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항·어촌의 정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생산성 높은 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배수시설, 어업폐기물 처리시설, 정화시설의 정비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어항·어촌을 건설해야 한다.

바다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항을 가꾸자

우리는 어항을 어촌의 중심지로 혹은 어촌사회·경제의 핵과 같은 거점 장소로 개발 이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항이 갖추어야 하는 어업기반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항을 중심으로 인구와 교통이 집중되고 어촌과 어촌을 연결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매개기능으로서 어항이 갖는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와 함께 어촌인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항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항이 어촌사회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어촌사회의 핵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어항은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져 어촌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본이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수산물의 거래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어항의 역할 수행을 다해야 한다. 셋째, 어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항과 연계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의 도로,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유어선계류장, 어촌민박, 수산물관광직매장, 관광체험어장 등 어항과 연계한 어촌관광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 우리는 비록 아주 작은 어촌일지라도 소규모항을 근거지로 하여 새로운 어촌관광상품이 개발되고, 도시사람들이 어느 때나 와서 어촌과 바다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어항과 어촌을 정성 들여 만들고 가꾸도록 해야할 것이다.